

## 복심자 이야기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십자군의 지휘자 로렌이 방패의 문장으로 사용한 복심자는 세계 공통의 결핵예방의 상징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드골장군이 나치에 짓밟힌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운 “자유 프랑스” 운동의 상징이었다.

“제가 14년 전 사무총장 재임 때 복심자 대상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늘 막상 이 상을 받고보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수상자 결정을 연락 받았을 때 맨 먼저 한 용철 박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의기투합하여 함께 결핵사업을 했는데 그 분은 먼저 돌아가셔서 이 상을 받지 못하고 저는 살아 있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박사님과 함께 이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결핵협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협회 발전과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역대 임직원과 관계 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계 결핵의 날 행사 때 복심자 대상을 받고 필자가 단상에서 말할 수상 소감이다. 보건 세계 편집자로부터 수상소감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그 이상 할 말은 없고 여기서는 복심자 대상의 내력과 복심자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핵협회 창립 기념일이 11월 6일이고 크리스마스 썰 운동이 그 무렵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립 기념식도 크게 하고, 결핵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제법 마스크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1년 가까이 내내 조용하다가 다시 때가 되어야만 마스크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뉴스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고 뉴스

거리를 제공하면 달려와서 취재하는 것이 마스크의 속성이고 보니 새로운 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882년 3월 24일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의 발견을 발표했는데 IUATLD는 그 100주년이 되는 1982년 그 날을 “세계 결핵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토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별 행사 없이 지내고 몇몇 나라에서 학술세미나 등을 가지는 정도였다.

14년 전 필자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조용히 지내던 봄철에 세계 결핵의 날 행사를 이벤트화하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하면 마스크도 크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 후 매년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의 결핵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행사를 하고 복심자 대상도 시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 썰 운동과 함께 연례행사로 정착되고 마스크와 일반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복심자 대상은 숨은 결핵 유공자를 발굴해서 세상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효과도 크다.

다음은 복심자 얘기인데 복심자는 9세기경 이미 근동의 어느 기독교 교파의 상징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제1회 십자군 지휘자 로렌공(Godefroy de Bouillon, Duke of Lorraine)이 십자가를 방패의 문장(紋章)으로 사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로렌십자가라고도 불렀으

며 승리와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세계 공동으로 결핵예방의 표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02년 10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결핵회의의 석상에서 프랑스의 쉐시론(Gilbert Sersiron)박사가 세계공동의 결핵예방운동의 상징으로 삼을 것을 제창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부터다.

복십자의 규격이나 모양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회의에서 규격까지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로의 상하 팔 길이가 똑같은 것과 아래 팔 길이가 더 긴 것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유럽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가 세로의 아래 팔 길이가 더 긴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 로렌십자의 원형이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복십자를 본떠 상하의 팔 길이가 똑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십자군과 결핵예방에 이어 복십자(로렌십자)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으로 망명한 드골장군이 조국을 짓밟은 나치에 대하여 "자유 프랑스"운동을 주도했을 때 그 운동의 상징이 바로 로렌십자이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젊은이와 지식인이 몸바쳐 싸운 치열한 레지스탕스정신은 조국 프랑스의 해방과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준 "자유 프랑스" 운동의 원동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복십자의 기치를 높이 든 드골장군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영웅 드골장군은 1959년 국민의 절대적 지지속에 제 5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위대한 프랑스를 구가하며 그의 쿨대만큼 프랑스의 자존심을 드높이기도 했는데, 69년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자 그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향리로 내려갔다. 그것은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낸 거인다운 멋진 퇴장이었다.

사를 드골은 1970년 11월 9일 라바스티 자택에서 조용히 80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 후 그의 향리 콜롬베 레 드제글리스에는 그를 추모하는 거대한 복십자 기념비가 세워졌다. 뫼뫼뉴대통령의 손으로 제막된 이 기념비는 "자유 프랑스"운동의 상징이었던 로렌십자가로서 크기도 개선문의 3분의 2에 달해 프랑스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었다. 드골 추모국가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사랑하고, 또 묻힌 콜롬베 언덕을 기념비 건립지로 정하고 마땅한 이쁜 드골 여사가 친필 청문에서 분홍색 화강암 복십자 기념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드골 자신은 생전에 이런 눈부신 기념물을 원치 않았음이 분명하고 유언에서도 그런 뜻을 분명히 했었다. 앙드레 말로 전 문화상이 드골과의 대화를 기록한 "쓰러진 거목"에 따르면 드골은 어느 날 마을 언덕을 응시하며 "언젠가 저기서 로렌십자가를 보게 될 걸세"하고 말했다 한다.

드골 추모위원회는 말로가 밝힌 드골의 말을 수긍하고 기념비 건립을 위해 국가적인 기부금모집에 나섰으며 그 결과 8백50만 프랑의 기금으로 건립되었다. 복십자 기념비는 높이 45m에 윗부분의 팔길이가 14m, 아래는 19m이고 하단에 야크라이트가 설치되어 조명이 비친다

십자군 지휘자 로렌공이 거둔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복십자 문양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 이후 구라파는 물론 각 대륙을 휩쓸었던 인류의 공적 결핵을 퇴치하는 세계 공동의 상징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드골장군이 자유 프랑스 운동의 상징으로 이 복십자를 앞세우고 싸워 이김으로써 복십자는 또 하나의 승리를 기록했다. ☆

김대규 님은 제20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 부문 복십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